

참상의 증거물들 국립묘지 이장대 발굴 10년 걸친 추적 '테러의 심장' 제거

■ 5·18 유골 수습 어떻게 했나

성역화 본격 추진하며 창고 보관 영구보존 공간 마련등 대책 시급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살상된 희생자들의 품에서 나온 태극기, 시계, 노트, 종알 등 유물들이 15년째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지난 1997년 5월 현재의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유골감정에 나서면서 발굴된 것이다.

5·18의 가장 확실한 흔적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민주화의 상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골들이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해 31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 묻은 태극기가 말하는 5·18= 1997년 5월2일부터 3일 간 유골감정이 5·18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광주·북구 상무관에서 3일간 희생자 129명의 시신을 감시했다.

29일 감시가 끝나자 동장의 책임 아래 청소차에 관을 싣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공원묘지로 향했다. 희생자들은 1명당 가족 5명만 참석하는 엄격한 통제 속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매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인근 망월부락의 이름을 빌려 망월묘역이 됐으며, 해마다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유족, 민주인사, 대학생 등이 찾아 민주성지가 됐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담화문 발표'로 5·18 기념일 제정과 5·18 망월묘역의 확장 및 성역화 등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논란을 거쳐 1996년 말 망월묘역을 대체하는 묘역을 북구 운정동에 조성하고 국립묘지로 승격하면서 1997년 5월 유족과 법의학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유골 감정 및 이장이 결정됐다.

◇유네스코 등재 앞서 유골 전시관 부터=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해 5·18 30돌을 맞아 시민군 성명서와 계열군 작전일지 등 기록물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공식활동에 들어가 5·18의 정신과 역사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1980년 5·18의 가장 생생한 희생자의 유골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광주시는 이장과정에서 나온 유골을 영구보존하고 이장작업 후 학계와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 또한 1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골감정 과정에서 검시기록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던 희생자 김중권(당시 42세)씨는 유족들과

추진하면서 실내기념전시관을 짓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포기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다. 실내전시관은 지난 1994년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에 따라 1440㎡ 규모의 전통한옥식으로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상무대와 옛 전남도청 일대에 기념공간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이 전시관은 망월묘역을 찾는 참배객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유물 전시, 체험공간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때 행정절차

를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어떠한 과정에서 전시관이 건립되지 못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수만 5·18 유족회 회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실내기념전시관이 빠져 성역화사업은 알맹이가 없게 됐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역사 의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997년 5월 4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옛 5·18 묘지에서 노부부가 80년 5월 당시 희생된 자녀의 유골을 만지며 울고 있다. 5·18 당시 이 노부부는 시신과 함께 태극기를 묻었으며, 발굴된 태극기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골감정 과정에서 나온 유골을 영구보존하고 이장작업 후 학계와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 또한 1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시관 설립하려다 예산부족에 흐지부지

광주시는 1997년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6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후 지원 규모가 줄면서 흐지부지됐다.

2일 광주시와 당시 광주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1997년 3월 광주시가 망월묘역 인근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내기념전시관을 짓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포기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다.

실내전시관은 지난 1994년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에 따라 1440㎡ 규모의 전통한옥식으로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상무대와 옛 전남도청 일대에 기념공간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이 전시관은 망월묘역을 찾는 참배객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유물 전시, 체험공간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때 행정절차

를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어떠한 과정에서 전시관이 건립되지 못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수만 5·18 유족회 회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실내기념전시관이 빠져 성역화사업은 알맹이가 없게 됐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역사 의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악관 지난 3월부터 다섯차례 회의

오바마 "은신처 조준 공격하라" 지시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은 10년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추적의 결과물이다. 빈 라덴의 소재지가 마지막으로 파악됐던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발생 3개월 후였던 그해 연말이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산악지대인 토라 보라 동굴에 은신해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미군은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지만 빈 라덴은 도망쳤고, 그 후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전쟁 최대의 성과"인 빈 라덴의 사살은 미군 정보당국의 집요한 추적과 파키스탄 정보 당국 협조의 산물이다.

◇작년 8월부터 소재지 첩보 거듭 확인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심야 발표에서 "취임 이후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빈 라덴의 사살 또는 체포를 알 카에다와 전쟁의 최우선 순위로 삼도록 지시했다"며 정보 당국이 총력을 펼쳤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공들인 작업 끝에 지난해 8월 빈 라덴에 대한 단서를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 확인에 수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깊숙한 은신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가다듬으면서 나는 국가안보팀 회의를 계속 가졌다"며 백악관 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보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정부 당국자는 콘퍼런스 콜(전화회의)을 통한 배경 설명에서 "지난 3월부터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3월14, 19일과 4월12, 19, 28일 등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팀 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를 거듭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미국 당국은 빈 라덴의 소재지에 대해 확인했다. 은신처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 100km에 있는 외곽 도시 아보타바드의 비밀기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나는 빈 라덴을 잡아 범정에 세우기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인 지난 29일 빈 라덴에 대한 공격작전을 승인했다고 당국자는 부연했다.

◇오바마, 일요일 작전 지시 = 빈 라덴에 대한 공격작전은 극비리에 일요일인 1일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나의 지시로 미국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빈 라덴 은신지역에 대해 조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의 미군 특수부대가 작전에 투입됐다. 미군과 빈 라덴 측과의 교전 끝에 빈 라덴은 사살됐고,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확보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전 과정에서 "미국인의 피해는 없었으며, 작전팀은 민간인 희생자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사살을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파키스탄 영토 내

에서 빈 라덴의 소재지가 파악될 경우 체포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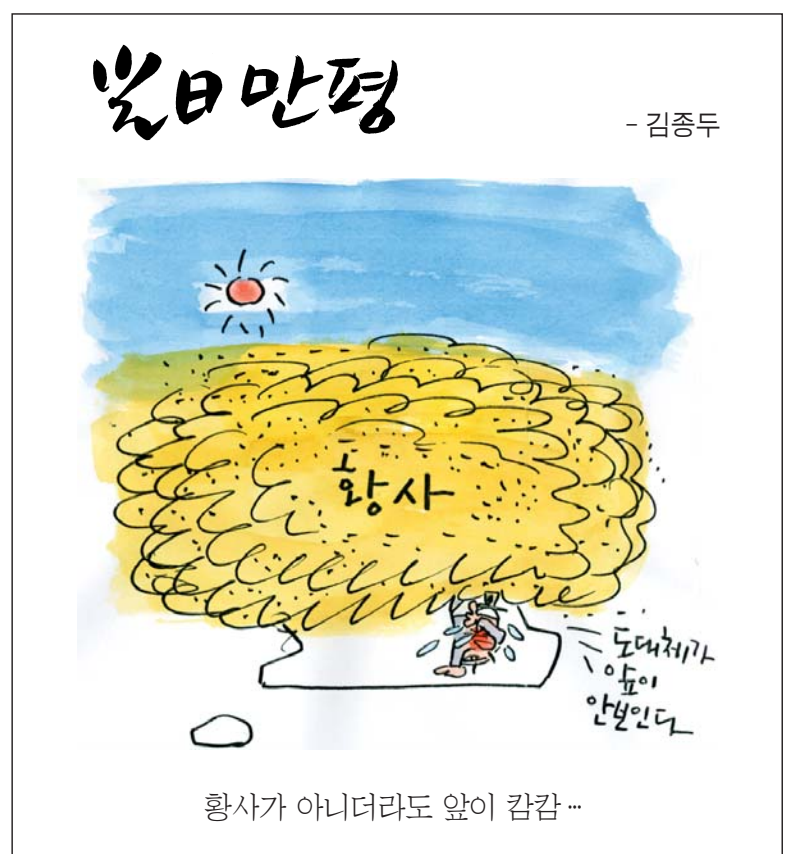
미군의 작전이 파키스탄 내에서 이뤄졌음을 염두에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 측에 각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빈 라덴 소재지 파악에는 파키스탄 측의 정보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과의 대(對) 테러 공조가 빈 라덴이 숨어 있는 곳을 파악하는 것을 도왔다"며 이날 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공식 발표. 1일(현지시간) 미군 특수부대가 공격 받고 교전 도중 사살됐으며 시신 확보. 미국 공식 발표. <연합뉴스>



氣의 고장 영암군

氣의 고장 영암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쇼핑물 기찬들로 초대합니다.

기찬들 쇼핑물이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항상 기찬들 쇼핑물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이번 2011년 4월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웰빙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는 고객님들께
최상의 농축특산물을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기찬들 쇼핑물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주문 <http://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

전화 주문 전남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담당 Tel. 061)470-2380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판매센터 Tel. 061)473-2130, 470-2846

택배는 하루전에 배송하여 희망일에 도착 되도록 하겠습니다.